

제57호·2018년 3월 21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

이슈페이퍼

러시아 '2030수산업종합발전전략' 추진동향 및 향후 과제-2

5. 연해주 수산물 클러스터 프로젝트

- 2016년 러시아 농업부 차관이자 연방 수산청장인 일라 쉘스타코프는 국가수산업발전계획에 따른 연해주 수산업 현대화 프로젝트를 발표함
- 2018년까지 연해주에서 5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극동러시아 수산업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함
- 프로젝트의 핵심은 '수산물 가공인프라 구축사업'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음

연해주 수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개요

구분	주요 내용
추진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수산업 개혁의 지시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 · 연해주 내 추진배경은 시베리아횡단철도로 아태지역 국가들과 인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명태, 청어 등 다량의 원양수산물 가공산업의 적지로 판단
전략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평균 5% 대 이상의 성장 달성 · 2030년까지 GDP 영역에서 2배 성장 기여
주요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간 50,000톤 저장 규모의 냉동창고 · 연간 65,000톤 규모의 명태필렛 공장 · 연간 36,000톤 규모의 냉동수산물 완제품 가공공장 · 임대형 다목적 가공단지 · 해양생명과학기술원과 연계한 혁신벤처단지 5개 건설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,680억원 민간투자 유발 · 러시아수산업 GDP에 631억원 기여 · 252억원 세수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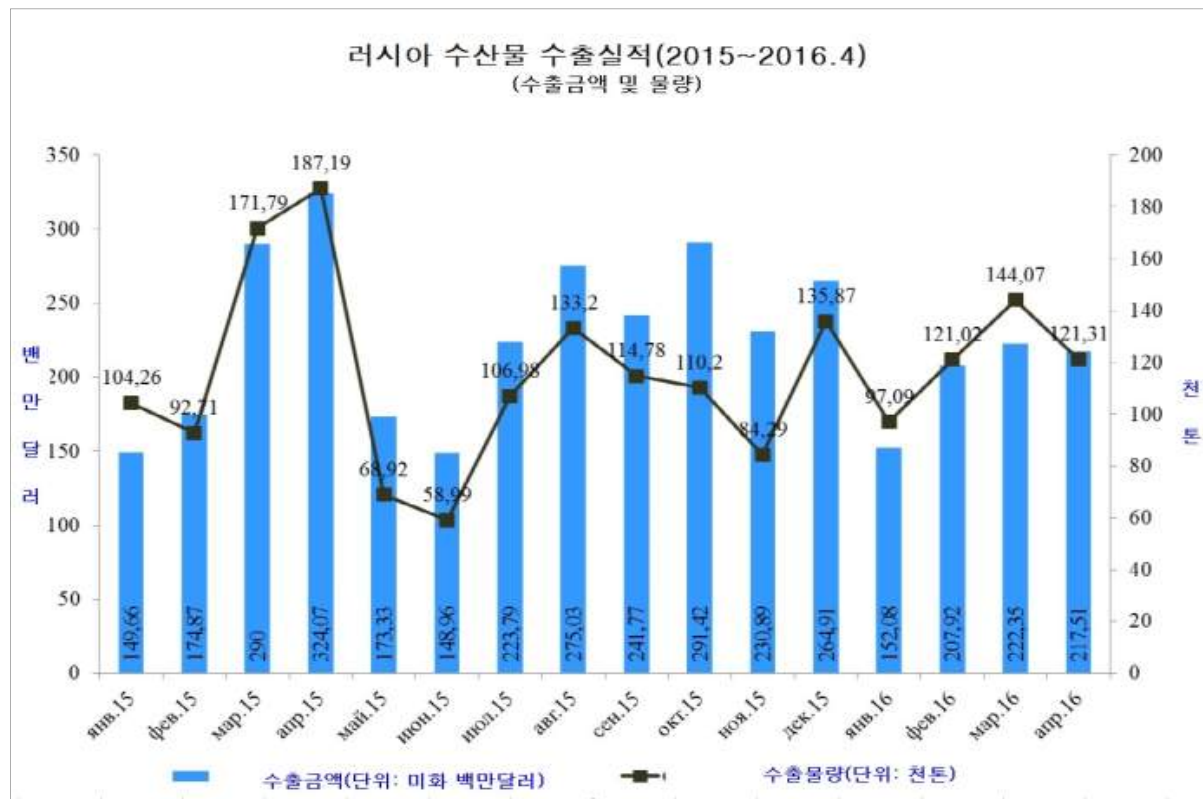
자료: 러 연방수산청(<http://fish.gov.ru>) 필자번역 후 재구성 (검색일: 2018년 3월 7일)

- 프로젝트 핵심은 지금까지 선상에서 생물 형태로 수출해 오던 기본구조를 육상에서의 가공을 거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의 수출전략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해석됨



- 2018년까지 연해주에서 1단계 사업추진 예정이며 완료되면 극동에서 연간 10만톤 규모의 수산물 생산량 증대 효과가 기대됨
- 규모의 경제를 구현해 10% 가량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, 연해주 내 총 5개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하부 클러스터까지 꼼꼼히 조성할 계획도 밝힘
- 앞으로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경제성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사할린, 캄차트카-쿠릴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

러시아 수산물 수출 현황



자료: 러 수산기업 웹사이트 <https://icebergfish.com>(검색일: 2018년 3월 7일)

- 러시아는 자국에서 어획되는 모든 수산물은 극동지역으로 모두 집하시켜 입찰형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됨
- 수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것이며 또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러시아 전략이 연해주 수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 수립의 기본 배경으로 풀이됨



6. 프로젝트 추진 현황

- 현재의 시장을 들여다보면 관련 프로젝트 대부분은 협의중 또는 계획단계로 실제 사업 추진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임

● 사례1: 러시아 기업 즈베즈다 바스토크의 수산양식장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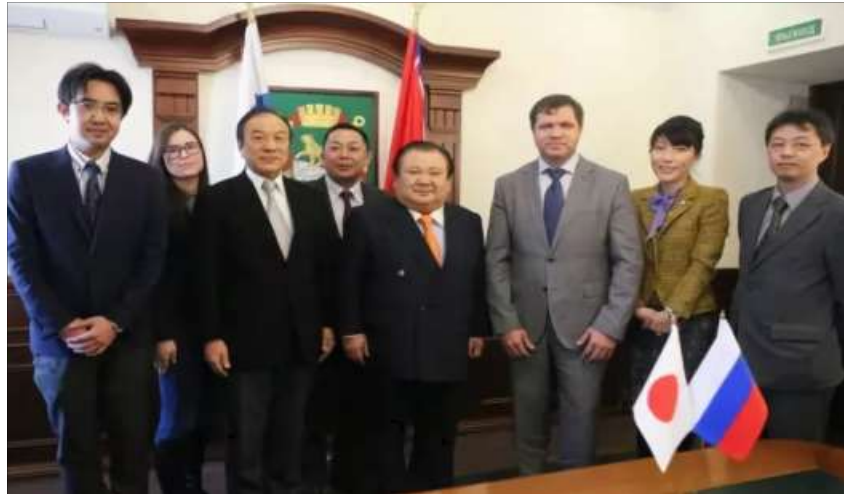
- 연해주 내 수산양식업 조성 사업에 60억 루블 이상이 투자될 것이라고 연해주정부가 밝힘
-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인 즈베즈다 바스토크는 앞으로 가리비, 홍합, 다시마, 성게 및 해삼 등의 수산물 양식장을 구축 예정
- 새롭게 들어설 양식장은 연해주 남부 해안지역에 조성 예정이며 연간 약 13만톤의 수산물을 생산할 계획이고, 고품질 해산물은 연해주 식품시장에 직접 진출할 계획임
- 알렉세이 루카닌 즈베즈다 바스토크 대표는 향후 계획을 오는 2021년 즈음 첫 양식수산물을 출하 목표로 사업 추진한다고 밝힘

● 사례2: 일본 기업 기요무라 코퍼레이션의 블라디보스토크 수산시장 건설사업

- 최근 비탈리 베르케옌코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은 기요무라 코퍼레이션 대표단과 만나 블라디보스토크 수산시장 건설 프로젝트를 논의함
- 이 프로젝트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간 논의의 사안이라고 함
- 기요무라 코퍼레이션은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수산시장 건설 및 개발 비전을 제시하며 앞으로 추진 일정에 합의함
- 블라디보스토크 수산시장 건설 부지로는 금문교 아래 위치한 체사레비치부두 인근 금각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
- 부지 선정은 수산물 하역시 수산물의 신선도, 시민 및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새롭게 건설될 수산시장은 전문 상점과 여타 편의시설로 구성되며, 400여 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도 건설될 예정임



블라디보스토크 시청을 방문한 기요무라 일본 기업 대표단



자료: 블라디보스토크시 웹사이트 www.vlc.ru(검색일:2018년 3월 8일)

● 사례3: 연해주 주요도시 수산물 시장 조성

- 연해주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 인근 위성도시인 아르츰, 우수리스크, 나호드카에 수산물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
 - 연해주 정부측은 이번 수산물 시장 조성 사업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는 국가수산업발전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밝힘
 - 조감도 작성 후 상세 설계안 확정 단계로 추정됨
- 인허가 취득 후 도시 계획안의 변경과정을 거쳐 법적 추진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임

7. 구조적 한계

- 국내 수산기업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수산업 발전전략이 국가정책의 기반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사업의 신뢰성 측면에선 환영할 일이라고 함
 - 하지만 실무검토에 착수하면 부지확보 등 기본 인프라(전기 및 상하수도시설 등) 확보의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함
 - 연해주 항만 근처의 대부분 부지들은 이미 사유지로 변경돼 부지 확보가 만만치 않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



- 따라서 러시아 측에서 제시한 마스터플랜과 지금 당장의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평가임

● 한국 기업 컨소시엄 프로젝트

- 연해주에 5만 톤 규모의 한국형 수산 가공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, 사업장 부지 문제로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
-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기업 컨소시엄은 극동투자수출지원청과 수산 가공물류단지 건설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
- 철도 접근, 엔지니어링 네트워크, 선박 접안시설과 5만 톤 저장 규모의 저온물류센터, 어선부두, 보세창고 및 필렛 가공시설 등 연 4만톤 생산 규모의 수산물 가공공장이 들어설 예정임
- 수산 가공물류단지 프로젝트는 (주)한국통산, 부산항만공사, 유니코로지스틱스, 코리안시푸드 4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투자기로 한 프로젝트임
- 1,33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(나지모바곶)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이슈로 아직까지 사업 진척에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함

8. 선행 과제

- 무엇보다 사업의 이행을 위해서는 자금력 뒷받침이 필수적임
- 러 정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무리없이 배정받을 수 있을지, 얼마만큼 투자를 이끌어내야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임
- 러시아 정부 주도로 사업 현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
- 사업 검토의 첫 단계인 부지 선정에서부터 토지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들의 요청사항 수용 등 법적·제도적 기반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

자료: <https://primamedia.ru> / <http://dtkapital.ru> / <https://rg.ru> / <http://www.primorsky.ru> / <http://primgazeta.ru> / <http://www.zonafish.ru>

전명수 현지리포터(국립블라디보스토크경제서비스대학교)
070-5044-9502, msjeon1976@gmail.com



물류동향

러일 정부, TSR연계 시범사업 공동 실시 예정

- 2018년 가을 러일 정부는 공동으로 TSR(Trans Siberian Railway, 시베리아횡단철도)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
 - 지난 3월 8일, 도쿄에서 개최된 '아시아 물류세미나'에서 일본 국토교통성(이하, 국교성) 종합정책국의 마치다(町田) 국제물류과장은 TSR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제시함
 - 이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일본계 화주를 모집하고, 국교성은 조사비용 예산에서 수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예정임
- 러시아에서도 일본기업의 TSR 이용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, 총 수송시간 예측 및 스케줄 등 정보 입수의 어려움으로 이용 시 장애 요인이 다수 존재함
 - 일본측은 2017년 8월 러일 실무작업반 및 양국 철도전문가회의를 통해 복합일관수송과 혼재가 가능하도록 통관, 환적 수속의 개선과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함
 - 러시아철도공사측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10월 자회사인 RZD Logistics를 통해 일본의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한 종합창구¹⁾를 개설하여 지원업무를 진행 중에 있음
- 2017년 연말 일본트랜스북합운송업자협회(TSIOAJ²⁾)는 요코하마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시범 수송을 실시함
 - TSIOAJ는 요코하마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경유, 모스크바까지의 시범수송 실시를 통해 포워더의 선하증권에 대한 러시아 세관의 처리실태와 드라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식품수송 가능성 등을 검증하였음
 - 양국은 2018년 가을 동 시험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시범사업의 추진 방안을 조율 중에 있음

1) 메일 주소는 japan@rzdlog.ru, 러시아어, 영어, 일어 대응이 가능하고, 무료 제공 및 24시간 이내의 응답을 원칙으로 함

2) Trans-Siberian Intermodal Operators Association of Japan



-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밀 기계와 식품 등 다양한 화물 수송, 진동 및 온습도에 대한 품질, 환적 절차의 간소화, 중량 화물 수송 시 고박 절차의 명확화 등을 검증할 예정임
- 마치다 과장은 중국-유럽 간 수송은 해상·항공이 중심이나, TSR이 제3의 선택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TSR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국 기업이 TSR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힘

자료: <https://secure.marinavi.com/news/>(검색일: 2018년 3월 18일)

최나영환 전문연구원
051-797-4677, chnayoung@kmi.re.kr



일본 MOL,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북극항로 새 양해각서 체결

- 2018년 3월 초, 일본의 미쓰이(Mitsui O.S.K. Lines)와 극동러 투자 및 수출을 관장하는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북극항로의 지속적인 개발 협력에 관한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함
- 미쓰이 OSK사는 야말반도의 LNG를 북극항로를 통해 아시아와 북유럽 지역으로 운송하는 Yamal LNG Project와 관련해 3월 말까지 동 서비스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 자사 최초의 LNG 쇄빙선을 투입할 예정임
 - 현재까지 북극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(석유, 가스, 석탄 등)의 운송이 각종 제약조건으로 극히 한정되었으나 최근 쇄빙선 건조기술의 발달과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해 얼음의 감소 등으로 자원의 상업적·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- 수에즈 운하(Suez Canal)의 전통적인 항로와 비교해보면 북극항로는 운송거리와 운송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및 전반적인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아시아와 유럽 간 거래에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
- 극동러 투자 및 수출기구(FEIA)는 이와 관련해 미쓰이 OSK의 현재와 향후 프로젝트 수행도 지원할 예정임
 - Leonid Petukhov 총괄이사는 "미쓰이 OSK가 일본 및 아시아, 태평양 국가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북극항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공동으로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함
 -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알렉산더 갈루슈카(Alexander Galushka)는 "우리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북극항로를 유럽-아시아 간 신규 항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"이라고 말함

자료: <http://logistics-manager.com/2018/03/02/mitsui-o-s-k-lines-sign-new-northern-sea-route-mou/>
(검색일: 2018년 3월 7일)

공영덕 연구원

051-797-4778, ydkong6053@kmi.re.kr



극동러 선도개발구역 '유즈나야 야쿠치야' 투자 성과 발표

- 러 사하공화국 대표 예고르 보리소프(Yegor Borisov)는 지난 3년간 선도개발구역 '유즈나야 야쿠치야'의 투자 성과에 대해 발표함
- 현재 선도개발구역 유즈나야 야쿠치야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6개의 기업이 입주허가를 받았으며 약 300억 루블을 투자할 예정임
- 또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3,5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임

사하공화국 대표 예고르 보리소프

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4034/>(검색일: 2018년 3월 18일)

- 선도개발구역 유즈나야 야쿠치야의 네룬그린스크(Neryungrink) 지역에는 인아그린스크(Inaglinsk)와 데니소브스카야(Denisovskaya)에 대규모 석탄 및 광석 채굴 단지가 개발 중임
- 현재 약 1,000명의 야쿠치아인이 일자리를 찾았으며 앞으로도 직업교육 및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 현지 모집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봄
- 또한 사하공화국 대표는 광석 채굴을 위한 광부 외에도 관련 산업 및 농업 분야 등의 전문 일자리가 선도개발구역을 통해 창출되었다고 발표함
- 선도개발구역 유즈나야 야쿠치야를 통해 경제적인 영향 외에 사회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고 함
- 선도개발구역 입주 기업인 콜마르(Kolmar)사는 사회복지 시설 및 종업원을 위한 사택 건설 등을 함



- 콜마사는 네륵그린스크 지역에서 대규모 석탄 채굴 및 가공 등의 투자를 진행 중이며 동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석탄 매장량은 10억 톤 이상임
- 이외 콜마사는 자유항으로 지정된 바니노항에서 석탄 환적을 위한 전용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 중임
- 이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석탄터미널로 연간 환적 물동량이 약 2,400만 톤으로 대규모 적재가 가능함³⁾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4034/>(검색일: 2018년 3월 18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

3)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1 'Самый мощный угольный терминал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',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3224/> (검색일: 2018년 3월 18일)